

## 2022년 1학기 미시경제학연구 -샤피로드미트리

설 문 내 용	결과	전체
<b>1.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</b>		
(1) 필수과목이기에	18(55%)	33(100%)
(2)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	4(12%)	
(3)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5(15%)	
(4)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2(6%)	
(5)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	0(0%)	
(6) 명강의로 소문나서	1(3%)	
(7) 재수강	3(9%)	
<b>2.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?</b>		
(1) 1/4 미만	1(3%)	23(100%)
(2) 1/4 이상 2/4 미만	1(3%)	
(3) 2/4 이상 3/4 미만	0(0%)	
(4) 3/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	2(6%)	
(5) 거의 100%(거의 매번 출석)	19(58%)	
<b>3.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? ((1)-(3)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)</b>		
(1)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	1(3%)	23(100%)
(2) 시험 때만 하였다.	1(3%)	
(3)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.	1(3%)	
(4)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.	9(27%)	
(5)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.	11(33%)	
<b>4.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2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3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5(45%)	
(5) 매우 그러했다.	7(21%)	
<b>5. 사용된 교재,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2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2(6%)	
(3) 그저 그러했다.	3(9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1(3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7(21%)	
<b>6.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1(3%)	2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1(3%)	
(3) 그저 그러했다.	4(12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8(24%)	
(5) 매우 그러했다.	9(27%)	
<b>7.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1(3%)	2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1(3%)	
(3) 그저 그러했다.	8(24%)	

	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30%)	
	(5) 매우 그러했다.	3(9%)	
8.	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(질문, 면담, 게시판, e-mail)를 제공받았습니까?		
	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23(100%)
	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	(3) 그저 그러했다.	2(6%)	
	(4) 대체로 그러했다.	8(24%)	
	(5) 매우 그러했다.	13(39%)	
9.	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?		
	(1) 너무 적었다	0(0%)	23(100%)
	(2) 적은 편이었다.	0(0%)	
	(3) 적절했다.	10(30%)	
	(4) 많지만 할만했다.	10(30%)	
	(5) 너무 많았다.	3(9%)	
10.	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	(1) 너무 쉬웠다.	3(9%)	23(100%)
	(2) 쉬운 편이었다.	3(9%)	
	(3) 적절했다.	7(21%)	
	(4) 어렵지만 할만했다.	7(21%)	
	(5) 너무 어려웠다.	3(9%)	
11.	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	(1) 매우 느슨했다.	0(0%)	23(100%)
	(2) 느슨한 편이었다.	3(9%)	
	(3) 적절했다.	8(24%)	
	(4) 빠빠하지만 할만했다.	9(27%)	
	(5) 너무 빠빠했다.	3(9%)	
12.	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?		
	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23(100%)
	(2) 그렇지 않았다.	3(9%)	
	(3) 잘 모르겠다.	4(12%)	
	(4) 대체로 그러했다.	12(36%)	
	(5) 매우 그러했다.	4(12%)	
13.	실습 또는 연습시간(TA session)은 유용했습니까?		
	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3(14%)	22(100%)
	(2) 그렇지 않았다.	1(5%)	
	(3) 잘 모르겠다.	9(41%)	
	(4) 대체로 그러했다.	4(18%)	
	(5) 매우 그러했다.	5(23%)	
14.	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?		
	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2(9%)	22(100%)
	(2) 그렇지 않았다.	1(5%)	
	(3) 잘 모르겠다.	3(14%)	
	(4) 대체로 그러했다.	9(41%)	
	(5) 매우 그러했다.	7(32%)	

## 전체

### 기타 건의사항

-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, 기말고사 문제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. 연습문제를 더 많이 주시거나 수업 내용을 변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  - 학부 미시경제학 수업과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. 대학원 수업인 만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  - Judging from what I heard from the others taking classes in the Econ department on the graduate level, the TA session for the microeconomics class was disastrous. Never have I had a session ending in 15-20 mins with all the explanations being like 'you can check it yourself in the file' — well, then what is the TA session for? The other TAs seemed to fulfill the sessions almost completely, while ours was not close to expectations at all.
  - maybe it could be better if give more related materials(links,books,examples) to learn for each assignment, and strongly recommend for past exam paper available.
-